

Goyang

고양특례시

# 건강한 도시만들기 기후포럼

#고양특례시 정책설명회  
#신기술전시회  
#기후포럼

2022. 12. 14. [수] 10:00  
KINTEX 제1전시장 (그랜드 볼룸)

## 정책제안 참여하기

고양시원 홈페이지 (www.goyang.go.kr)  
시민참여 → 제안합니다 → 제안제안하기



## PROGRAM

10:00 - 10:20	개회식
10:20 - 10:40	경진대회 수상자 표창 및 발표(2팀)
10:40 - 11:00	고양특례시 정책설명회
11:00 - 11:50	정책제안 및 답변
11:50 - 12:00	신기술 전시회
13:00 - 13:30	공연
13:30 - 15:00	건강한 도시 고양 정책 방향 발제
15:00 - 15:50	정책토론
15:50 - 16:00	폐회

주최/주관 | 고양특례시 GYRI 고양시정연구원

후원 | 경기도

[문의처] 기후위기대응 건강한 도시만들기 경진대회 운영사 (☎1533-4976)

12

VOL. 358

특집호



GOYANG SPECIAL CITY MAGAZINE

2022 DECEMBER

고양시원  
2022 DECEMBER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모바일 소식지  
<고양원픽>을 보실 수 있습니다.



Goyang

고양특례시

# 건강한 도시만들기 기후포럼

2022. 12. 14. [수] 10:00  
KINTEX 제1전시장 (그랜드 볼룸)

## 정책제안 참여하기

고양제민 홈페이지 (www.goyang.go.kr)  
시민참여 → 제안합니다 → 제안제안하기



주최/주관 | 고양특례시 GYRI 고양시정연구원

후원 | 경기도

[문의처] 기후위기대응 건강한 도시 만들기 경진대회 운영사 (☎1533-4976)

#고양특례시 정책설명회  
#신기술전시회  
#기후포럼

## PROGRAM

10:00 - 10:20	개회식
10:20 - 10:40	경진대회 수상자 표창 및 발표(2팀)
10:40 - 11:00	고양특례시 정책설명회
11:00 - 11:50	정책제안 및 답변
11:50 - 12:00	신기술 전시회
13:00 - 13:30	공연
13:30 - 15:00	건강한 도시 고양 정책 방향 발제
15:00 - 15:50	정책토론
15:50 - 16:00	폐회

12

VOL. 358

특집호

## COVER STORY

「고양특례시민의 날」

12월호 표지에는 특례시 출범 원년 및 시 승격 30주년을 기념한 '고양특례시민의 날'의 풍경을 담았습니다. 이번 기념식은 도심 속 여유와 낭만을 즐기는 가을소풍처럼 꾸며져 수많은 시민의 발길을 이끌었습니다. 고양특례시는 이날 시민들과 함께 비전을 나누며 빛나는 미래를 엿보았습니다. 시민의 삶이 진정 빛날 수 있도록 시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보다 살기 좋은 고양특례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이달의 꽃

# 포인세티아

“수많은 이웃들의 축복이 있어  
무탈하게 12월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나도 포인세티아 꽃으로  
그들의 축복을 빌어주고 싶습니다.

”  
- 백승훈 <축복> 中 -

붉은색과 초록색의 잎을 가진 포인세티아는 크리스마스 장식에 가장 많이 등장한다. 밤이 길어지고 낮이 짧아지면 꽃을 피운다. 꽃은 보통 크리스마스 전후에 핀다. 그래서 성스러운 밤의 꽃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포인세티아를 12월의 꽃으로 소개한다.

이름	포인세티아, Poinsettia, Christmas-flower
학명	Euphorbia pulcherrima
개화시기	12월
꽃말	축복, 축하
분포	멕시코
원산지	멕시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모바일 소식지  
<고양원픽>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역사의 꽃은 지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는 미래의 거울이다.”

2022년 2월, 시정소식지<고양소식>에 첫 번째 역사의 꽃이 피었습니다. 1970년대 일산의 정겨운 풍경을 담은 빛바랜 사진 한 장은 우리의 기억 한편에서 고양시의 과거 추억을 소환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고양군에서 고양시로, 다시 고양특례시로. 그렇게 과거를 자양분 삼아 고양은 무럭무럭 성장해왔습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했고,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11월까지 모두 열 송이의 역사의 꽃이 <고양소식> 안에, 또 시민 여러분의 가슴에 뿌리내렸습니다. 가슴 벅찬 장면 장면들은 시 승격 30주년과 특례시 출범의 원년을 맞은 고양시민들에게 더 나은 내일을 열어갈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 주었습니다. 2022년 12월호를 끝으로, ‘역사의 꽃이 피었습니다’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하지만, 올 한 해 동안 피어난 아름답고 감동적인 역사의 꽃들은 우리 마음속에서 영원히 지지 않을 진한 향기로 남을 것입니다.

그동안 ‘역사의 꽃이 피었습니다’를 사랑해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소중히 간직한 자료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머리 숙여 고마움을 전합니다. 새해, 새로워진 <고양소식>을 통해 더욱 의미 있고 흥미로운 코너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양소식  
오디오북



고양소식  
전자책

표지 모델을 모집합니다!

<고양소식>은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소식지입니다.

고양특례시에서 가족, 친구, 이웃 등과 함께한  
시민 여러분의 사연을 제보해주세요.  
당첨된 분은 사연과 함께 소중한 추억이  
있는 공간에서 표지 사진을 담아 드립니다.  
당첨자에 한하여 소정의 상품권을  
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신청 방법 이름, 나이, 주소, 연락처, 사연,  
원하는 촬영 장소 작성하여 이메일로 신청

이메일 gysosik@naver.com

발행인 고양특례시장 이동환  
편집인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에디터 홍보기획팀장 박현각, 주무관 김명주  
편집위원 김민정, 김은정, 노정민, 오문석, 윤재진,  
이경현, 이암중, 임태성, 정동일, 정현숙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홈페이지 www.gy1pick.kr  
이메일 gysosik@naver.com  
기획·디자인 웨스트코(주)  
발행일 2022년 12월 1일

- 04 포토리뷰  
사진으로 보는 민선8기 이야기
- 06 시정 운영 방향  
시민과 함께 고양의 미래를 바꿔갑니다
- 08 10대 핵심과제  
고양특례시 10대 핵심과제
- 12 분야별 공약  
고양특례시 8대 분야, 70개 공약
- 14 시정포커스  
키워드로 보는 고양

- 18 행사리뷰  
2022 고양도시포럼, 2022 고양 창업 페스티벌 다시보기
- 20 체험할 고양  
지구야, 아프지 마! 환경 보호, 체험으로 배워요
- 24 오피니언  
쓰레기 대란을 피하는 법
- 26 특집 동지  
새해의 시작 '작은 설' 동지
- 28 고양툰  
우리 동네 상생주차장

- 30 은빛바람  
탄현1동 실버동요합창단
- 34 플레이 온  
곽윤기 & 김아람 쇼트트랙 선수
- 36 피어나라 청춘아  
인공지능 농작물 병충해 진단 시스템 개발자
- 38 사랑♥고양  
사회복지법인 애덕의집 소울베이커리
- 40 미담 특특  
원흥종합사회복지관
- 42 고양in 연예人  
방송인 김태진

- 44 길따라 이야기따라  
송강누리길
- 48 고양 핫스팟  
꼬꼬체험관
- 50 건강돌보기  
병원 밖 심장지와 심폐소생술

- 54 문화공감  
12월의 주요 문화행사 소식
- 56 고양계시판  
시정, 유관기관, 의정 소식
- 58 독자 소리함  
독자 후기 및 새해 이벤트

# 미래를 바꾸는 힘! 고양

## 사진으로 보는 민선8기 이야기

민선8기 출범 이후 고양특례시의 시계는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내달리고 있다.  
미래를 만들어가는 시간, 그 특별한 순간을 사진으로 살펴본다.



#9.8.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국토부장관-지자체장 간담회



#10.1.

고양특례시민의 날 기념식



#10.25.

2022 고양도시포럼



#11.10.

이스라엘 바이오하우스 관계자 면담,  
기업유치 핵심전략 벤치마킹



#10.31.

이태원 사고 희생자 분향소 설치



#11.14.

UAE 마스다르 시티 방문,  
전략산업 활성화 방안 강구

#9.17.

청년희망톡톡 토크콘서트



#10.6.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취임 100일 기자회견



#11.4.

대곡역 환승구간 긴급 안전 점검



#11.16.

경제자유구역 실현 방안 관련 기자간담회





# 시민과 함께 고양의 미래를 바꿔갑니다

## 민선8기 고양특례시 시정 운영 방향

도시에 내재된 역동적인 가치를 키워 더 새롭고, 더 찬란한 고양특례시를 맞이하는 일.  
시민과 함께 만들어갈 민선8기의 다짐이자 바람이다.  
글로벌 경제도시를 향한 고양특례시의 시정 목표와 핵심 과제를 소개한다.

### 시정 슬로건

### 미래를 바꾸는 힘! 고양

새로운 고양과 변화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 성장·발전하는 역동적 에너지,  
미래지향적인 글로벌 도시를 실현하려는 의지를 담았다.

### 시정 운영 원칙

공정 | 상식 | 혁신 | 화합

### 시정 목표



시민 우선  
소통시정



안전·안정·  
안심 행정



맞춤형  
합리적 복지



사통팔달  
교통 허브



첨단과  
문화의 융합

## 민선8기 고양특례시 10대 핵심과제

### 01 경제자유구역 지정

도시를 변화시키는 신성장 동력의 토대를 만듭니다.

### 02 주민 맞춤형 17기 신도시 재건축

도시의 주거 환경을 재정비합니다.

### 03 바이오 정밀 의료 클러스터 조성

바이오 인프라를 기반으로 신성장 산업 영역을 확보합니다.

### 04 미세먼지 프리 고양 만들기

쾌적한 환경으로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합니다.

### 05 글로벌 한류 콘텐츠와 공연 거점 도시 조성

K-POP 공연 콘텐츠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 06 자유로~강변북로 지하고속도로 개설 추진

경기서북부를 대표하는 사통팔달 도시로 나아갑니다.

### 07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고양시 광역 철도망 반영

신규노선 발굴로 직주근접을 실현합니다.

### 08 특목고 설립 추진(과학고·영재고 등)

특화된 인재양성 기반을 조성합니다.

### 09 시민 복지재단 설립

따뜻하고 촘촘한 복지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 10 세계적 관광자원 조성(행주산성 등)

문화유산의 가치를 키워갑니다.

자세한 내용은 8~11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 공약비전

“ 도시혁신 인프라 구축을 통한 ”  
‘완전한 자족도시’로 새로고침

### 경제·교육문화

- 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겠습니다.
- ② 활력 있고 매력 넘치는 글로벌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 ③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교통

- ① 도시 및 강남접근 교통망을 획기적으로 만들겠습니다.
- ② 시민들의 편안한 출퇴근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③ 스트레스 없는 주차환경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도시정비·시정혁신

- ① 시민 최우선의 실용주의 자세로 나가겠습니다.
- ② 주민맞춤형 재개발·재건축으로 자산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 ③ 살고 싶은 정주도시를 위해 시정을 혁신하겠습니다.

### 복지

- ① 사각지대 없는 두터운 복지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 ② 필요한 시민께 더 든든하게 지원하겠습니다.
- ③ 아이 키우기 좋은 행복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 일자리·안전환경

- ①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의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 ②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을 지원하겠습니다.
- ③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2~13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 미래를 바꾸는 힘! 고양 고양특례시 10대 핵심과제

‘미래를 바꾸는 힘! 고양’이라는 비전 아래 새로운 경제도시 실현을 위한 밑바탕이 그려졌다.  
4년간 민선8기의 시정 비전을 담은 고양특례시의 10대 핵심과제를 이곳에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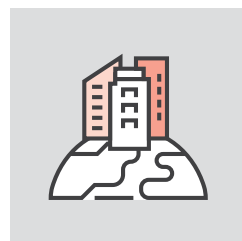


### 01 경제자유구역 지정

- 1 경기 북부 최초,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보지 선정(2022년 11월)
- 2 첨단 기술기업 1천개 이상 유치로 경기북부 성장주도
- 3 경기북부 접경지역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동북아 및 유럽진출 글로벌 허브 최적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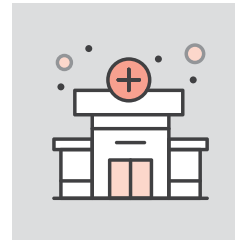
#### 관련 사업

- ① 고양일산테크노밸리 ② CJ 라이브시티 사업 ③ 고양방송영상밸리 ④ 킨텍스 제3전시장  
⑤ 창릉신도시 자족용지 확보



### 02 주민 맞춤형 1기 신도시 재건축

- 1 일산 신도시를 1기 신도시 재건축 모범사례로 추진
- 2 재건축 선도 지구 지정(2023년 내)으로 속도감 있는 재건축 동력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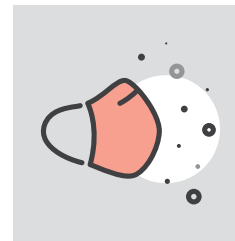


### 03 바이오 정밀 의료 클러스터 조성

- 1 관내에 위치한 바이오 인프라(6개의 종합병원, 동국대BMC)를 기반으로 미래성장 동력이 될 산업영역 확보
- 2 타 지자체와의 차별화되는 바이오산업 영역을 선점하여 고부가가치 민간형 일자리 창출 및 민간투자 활성화
- 3 유전공학, 의료기기, AI(인공지능), 빅데이터 관련기업을 집적화 및 유치

#### 관련 사업

- ① 경제자유구역 ②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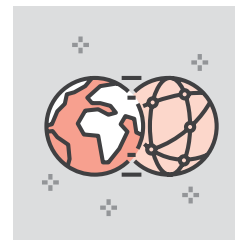


### 04 미세먼지 프리 고양 만들기

- 1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경로당 등) 미세먼지 방진창 설치 지원으로 건강 보호 및 쾌적한 실내 활동 공간 제공
- 2 생활권 주변으로 도시숲·포켓숲 확충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 3 민간·공공부문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

#### 관련 사업

- ① 미세먼지 방진창 설치 ② 도시숲·포켓숲 확충 ③ 친환경 자동차(수소·전기) 보급  
④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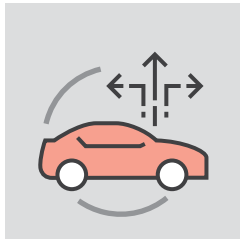


### 05 글로벌 한류 콘텐츠와 공연 거점 도시 조성

- 1 최고의 공연시설과 특례시 위상에 부합하는 파워브랜드 공연콘텐츠 창출
- 2 고양방송영상밸리와 <K-POP 콘서트+방송콘텐츠> 연계개발
- 3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야외 글로벌 대중음악 페스티벌 개발
- 4 고양시 K-POP 대중음악 아티스트 육성지원 프로그램
- 5 선택과 집중을 통한 도심 일상 거리공연의 질적 개선

#### 관련 사업

- ① CJ 라이브시티 사업 ② 고양방송영상밸리 ③ 킨텍스 제3전시장



## 06 자유로~강변북로 지하고속도로 개설 추진

- 1 서북부권과 동남부권을 연결(서울 강남 30분대 진입)하는 지하고속도로망의 개발로 자유로 교통정체 해소 및 서울시와 경기서북부를 연결하는 교통 요충지로서 역할

### 관련 사업

- 1 서울시 : 강변북로 재구조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중[강변북로(가양대교~영동대교) 지하화를 통한 도로기능 회복]
- 2 서울시 : 경부간선도로 기능 고도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중[경부간선도로(양재IC~한남IC) 지하화로 상습정체 개선 검토]
- 3 국토부 : '양재-고양'(20.7.), '서울-고양'(21.8.)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 검토 중(22.12. KDI 결과 발표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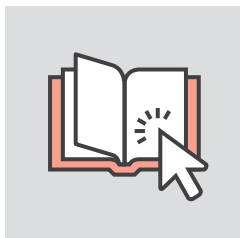


## 07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고양시 광역 철도망 반영

- 1 출·퇴근 시간 서울 도심까지 30분대 진입 목표
- 2 교통수해를 받지 못하는 철도사각지대 교통복지 증진

### 관련 사업

- 1 신규노선 발굴: 신분당선 일산 연장, 3호선 급행, 9호선 급행 대곡연장 등
- 2 교통소외지역 노선 발굴 : GTX, 3호선 등 기존노선의 교통수해를 받지 못하는 지역 노선 발굴
- 3 기존노선 추가 검토 : 고양은평선 일산연장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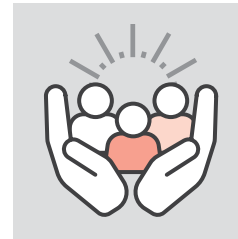


## 08 특목고 설립 추진 (과학고, 영재고, 자율형사·공립고)

- 1 수준 높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세계 인류에 공헌할 수학·과학 융합인재 등 특화된 인재양성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창릉신도시에 과학고, 영재학교 설립

### 관련 사업

- 1 교육부의 정책방향에 맞추어 도교육청에 고양특례시 특목고 설립 유치를 지속적으로 제안, 과학고, 영재학교 설립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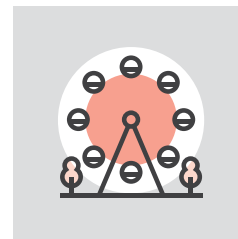


## 09 시민복지재단 설립

- 1 고양특례시의 인구학적, 사회학적, 도시특성을 반영한 복지환경에 적절한 대응 전략 기획 및 수립 필요
- 2 저출산 고령화, 기초생활수급자 증가, 장애인 수 증가 등 복지욕구 확대에 대비하고, 복지사각지대 예방 및 복지서비스 중복 방지 필요

### 관련 사업

- 1 복지정책 연구, 조사 및 개발
- 2 민·관 협력체계 강화 및 구축(복지사각지대 예방 및 서비스 중복 방지)
- 3 민간복지자원 개발 및 배분
- 4 복지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 5 취약계층 권리 옹호 사업



## 10 세계적 관광자원 조성 (행주산성 등)

- 1 행주산성의 역사, 문화 콘텐츠와 신기술을 접목시켜 매력적이고 상징적인 고양시 대표 관광 명소로 조성
- 2 행주산성 야간관광을 통해 체류시간 연장, 지역소비 활성화를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 운영
- 3 세계문화유산인 서오릉, 서삼릉은 고양시티투어 확대 운영 및 주변 관광안내표지판 전체 정비

### 관련 사업

- 1 행주산성 야간관광 명소화(행주산성 미디어아트쇼, 행주가 예술이야, 행주산성 야간개장 등)
- 2 고양시티투어 특별코스 개발
- 3 행주산성 수변데크 조성 추진
- 4 행주산성 석성 복원 사업 추진
- 5 체류형 관광육성을 위한 한옥숙박체험 시설 확충

“ 변화와 혁신의 경제특례시를 구현해 자족도시의 기반을 형성하고, ”  
고양특례시민의 잃어버린 자산가치를 반드시 회복시키겠습니다.

고양 성공시대, 시민 행복시대

# 고양특례시 8대 분야, 70개 공약

“시민께 약속드립니다” 당찬 포부와 함께 민선8기 고양특례시는 미래도시를 향한 정책 로드맵을 그렸다.

시민만 바라보며 달려갈 고양특례시의 8대 분야, 70개 공약을 담아본다.



## 경제·교육문화

**시정목표** 첨단산업과 문화가 융합된 글로벌 명품도시

- |                      |                               |
|----------------------|-------------------------------|
| ①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 ⑨ 특목고 등 설립 추진                 |
| ② 바이오 정밀의료클러스터 조성 추진 | ⑩ 드림스쿨캠퍼스 조성                  |
| ③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 ⑪ 예술인 지원체계 및 문화복지 확대          |
| ④ K-메타컬처플랫폼 구축       | ⑫ 글로벌 한류 콘텐츠와 공연 거점 도시 조성     |
| ⑤ 스마트테크노밸리 구축        | ⑬ 세계적인 관광자원 조성                |
| ⑥ 마이스 산업 육성          | ⑭ 생활스포츠 도시 구현을 위한 스포츠 콤플렉스 조성 |
| ⑦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사업 추진  | ⑮ 영어전문도서관 조성                  |
| ⑧ 한예종 등 종합대학 유치 추진   | ⑯ 동물교감치유파크 및 펫 테마파크 조성        |



## 교통

**시정목표** 사통팔달 교통 허브망 구축

- |                            |                               |
|----------------------------|-------------------------------|
| ① 신분당선 일산 연장 추진            | ⑧ 주차장 신설 및 확대                 |
| ② 3호선 급행·경의중앙선 증차 추진 및 확대  | ⑨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증진              |
| ③ 9호선 급행 대곡 연장 추진          | ⑩ 자유로~강변북로 지하고속도로 건설 마스터플랜 수립 |
| ④ 역 신설 추진 등 철도서비스 확대       | ⑪ 국도1호선 통일로 4차선에서 6차선 확대      |
| ⑤ 고양누리버스 교통편의 증진           | ⑫ 주교와 장항을 연결하는 교통망 조성         |
| ⑥ 서울시 진입 광역버스 준공영제 참여      | ⑬ 행신 마곡 간 교통 개선               |
| ⑦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저상버스 확대 도입 | ⑭ 대곡로까지 고일로 연장 확장             |
|                            | ⑮ 행주로~제2자유로 연계로 설치            |



## 도시정비·시정혁신

**시정목표** 시민 최우선 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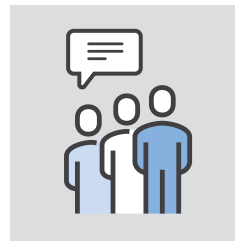
- |                     |                              |
|---------------------|------------------------------|
| ① 방송영상밸리 조성 조속 추진   | ⑦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운영             |
| ② 구도심 정비 합리화 방안 추진  | ⑧ 시민 시정 참여기회 제공 및 인센티브제 도입   |
| ③ 주민 맞춤형 재개발·재건축 추진 | ⑨ 세입증대를 위한 외부 및 신규 세원 확보 추진  |
| ④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추진   | ⑩ 동 행정복지센터 신설 및 확대           |
| ⑤ CJ라이브시티 조기 완공 추진  | ⑪ 외부 전문 감사인 제도 운영            |
| ⑥ 도시정비 전담기구 설치      | ⑫ 복합환승센터 연계 대곡역세권 개발특구 조성 사업 |



## 복지

**시정목표** 맞춤형 합리적인 복지

- |                                   |                                 |
|-----------------------------------|---------------------------------|
| ① 시민복지재단 설립                       | ⑧ ICT 기반의 스마트 건강관리 플랫폼 운영       |
| ② 여성에 대한 학대와 폭력 제로화               | ⑨ 경로당 주치의제와 헬스케어 실시             |
| ③ 고양특례시 고령생산지표 개발                 | ⑩ 장애인 통합 건강보건관리서비스 제공           |
| ④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Barrier Free) 조성 | ⑪ 저출산·초고령사회 적극 대비               |
| ⑤ 질 높고 부담 낮은 양육환경 조성              | ⑫ 초·중·고 무상급식 조식 제공              |
| ⑥ 틈새보육 확대를 통한 영유아 돌봄 강화           | ⑬ 치유농업 서비스 제공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
| ⑦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 제로화               | ⑭ 서울시립묘지 및 승화원 등 서울시와 상생발전 조기이행 |



## 일자리·안전환경

**시정목표** 경제안정, 노후안심, 생활안전의 3안(安)행정

- |                                 |                             |
|---------------------------------|-----------------------------|
| ① 고양시 인재양성을 위한 산·학·연 컨소시엄 체계 구축 | ⑦ 제2호수공원 조성                 |
| ② 창업 육성과 창업펀드 지원                | ⑧ 먹 감고 발 담그는 하천 만들기         |
| ③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지원 대책 마련          | ⑨ 난지물재생센터 복개 공원화 및 처리시설 지하화 |
| ④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추진              | ⑩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
| ⑤ 기반시설 안전진단 정기적 추진              | ⑪ 미세먼지 프리고양 만들기             |
| ⑥ 상습 침수 지역 배수펌프 시설 정비           | ⑫ 소각장 이전 추진                 |
|                                 | ⑬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반대         |



# KEYWORD

## 로 보는 고양

### 고양의 전성기는 지금부터!

고감한 시정 혁신과 핵심 정책을 바탕으로 달려온 고양특례시.

지금도 더 새로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심없이 달려가고 있다.

미래도시 희망을 열어 갈 민선8기 고양특례시의 주요 시정 변화를 키워드로 살펴본다.

## 경제자유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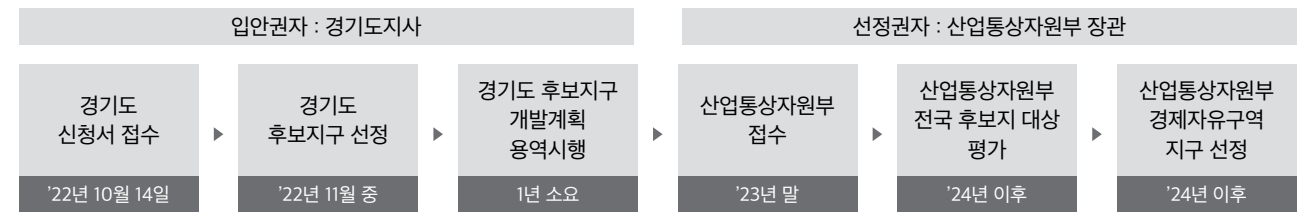
### 경기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후보지로 선정

고양특례시가 경기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연구용역 대상지로 지난 11월 선정되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경기도 후보지로 선정된 뒤 연구용역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연구용역 대상지 선정으로 고양특례시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한 1차 관문을 통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연구용역 대상지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추가

지정 신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심사 평가를 통해 선정되었으며, 평가는 1차 현장심사와 2차 서류심사로 이뤄졌다. 고양특례시는 경기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내년 2월부터 경기도와 공동으로 '경기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 12월 용역결과를 토대로 경기도가 산업통상자원부에 경기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산자부 심사에서 최종 선정된다면, 경기 북부지역에서는 최초로 경제자유구역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 경제자유구역 추가지구 선정 절차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각종 규제에 막혀 기업이나 대학 등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해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위기에 빠진 고양특례시의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필수 과제다. 또, 바이오 정밀의료 클러스터 조성 등 다른 사업들이 후속적으로 이행되기 위한 선제조건이기도 하다.

고양특례시는 그간 경제자유구역추진단을 구성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시정연구원, 산업진흥원, 고양도시관리공사 등 산하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또, 여러 중앙부처와 경기도를 방문하며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강력히 건의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 간담회, 세미나,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

시는 또, 최종 선정을 위한 추진 전략을 견고히 하기 위해 해외 선진 국가 벤치마킹에도 나섰다. 지난 11월에는 이스라엘 혁신청 및 UAE 두바이 공항 프리존·마스다르 경제자유구역청 등의 시찰을 통해 고양 경제자유구역 조성과 관련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도 했다.





COP27 그린존 전시장 전경



COP27 UN 글로벌 이노베이션 허브 세션장

## 탄소중립도시

### COP27 참가...아시아 대표 탄소중립도시 선도

고양특례시는 지난 11월 이집트 삼엘세이크에서 열린 COP27(제27차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 참석했다. UNFCCC(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의 특별 초청에 따른 것이다.

고양특례시는 지난 3년간 중앙정부보다 발 빠르게 이행점검을 추진, 그간 누적된 경험과 정책 보완사항 등을 공유하며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왔다. 그 결과 이번 COP27을 통해 지방정부의 기후행동 역할 및 책임에 대해 강조하고 그간의 경험과 노력을 공유할 수 있었다. 시는 이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는 아시아 챔피언 도시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양특례시가 COP27에 초청된 것은 UNFCCC의 도시파트너로서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상징한다 볼 수 있다.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자

로서 도시 역할의 확대가 필요한 시점에서, 고양의 행보가 전 세계 도시행동의 시작이자 흐름을 선도하고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

시는 이번 COP27을 통해 시의 선제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전 세계 도시에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시 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보완하여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는 한편, COP33 개최 유치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COP27 회의장 입구 전경

## 해외벤처마킹

### 이스라엘·UAE 방문...기업유치전략 벤치마킹

고양특례시는 경기북부 최초로 경기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용역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해외 선진국의 성공사례 벤치마킹에 적극 나섰다.

고양특례시는 지난 11월 10일~14일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UAE)에 방문, 기업유치 및 육성전략 등을 벤치마킹하며 경제자유구역 조성을 위한 전략수립에 나섰다.

우선,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 혁신청, 와이즈만 연구소, 바이오하우스 등 기업유치 분야에서 핵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3개 기관을 방문, 각 기관 담당자와 심층면담을 진행했다. 이스라엘이 스타트업 육성에 특화된 나라인 만큼, 기업친화적 생태계 조성방안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었다.

이어 13일부터 14일까지는 경제자유구역 대표 성공사례로 꼽히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와 아부다비를 방문했다. 13일에는 두바이 공항 프리존(DAFZA)과 헬스케어시티 및 세계무역센터를 시찰, 세계 경제특구로 성장한 두바이의 현황 및 성공사례를 파악했다. 공항 프리존에서는 성공요인 분석을 통해 수도권과 인천공항 등이 인접한 고양특례시의 지리적 이점을 살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이어졌으며, 헬스케어시티에서는 바이오 정밀의료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방안 마련에 집중, 경제자유구역 조성 전략과의 접목 가능성을 모색했다.



두바이 공항 프리존

세계무역센터에서는 부사장과 면담을 통해 두 도시 간 글로벌 이벤트 추진 가능성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14일에는 친환경 혁신도시를 표방하는 아부다비의 마스다르 시티를 방문했다. 시는 다국적·스타트업 기업 진출의 요충지인 마스다르 시티의 핵심 전략을 파악하여 고양특례시에 형성된 바이오·마이스 등 전 분야의 지역 전략산업을 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해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 조정대상지역 해제

### 고양특례시 전역 조정대상지역 해제

고양특례시 전역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다. 고양특례시는 최근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어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거래가 감소함에 따라, 실수요자를 보호하고자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지난 11월 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양특례시 전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 조치했다.

고양특례시의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0.8%)은 소비자물가상승률(0.15%)보다 낮아 주택가격 하락세를 보였고, 올 9월 월간 고양특례시 주택 거래량은 752호로 지난해 10월 1,857호에 비해 60%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50%인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가 70%로 완화되고, 청약 조건의 완화, 분양권 전매 제한 해제, 2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연장 등 부동산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시는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 조치를 통해, 그간 위축된 주택 거래량이 상승하는 등 고양특례시 관내 부동산 경기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고양특례시 주요행사 다시보기



01

02



03



04



### 10.24. (월) ~ 26. (수) 2022 고양도시포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킨텍스에서 열린 '2022 고양도시포럼'이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도시정비, 환경, 평생학습 등 3개 세션으로 운영되었다. 세션별 전문가 발표에 이어 패널 토론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여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 특히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누구나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케 함으로써 참여 기회도 넓혔다. 온·오프라인을 통해 시민들과 고양특례시의 비전 및 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교류의 장이 되었다.



05

06



07



08

### 11.10. (목) ~ 11. (금) 2022 고양 창업 페스티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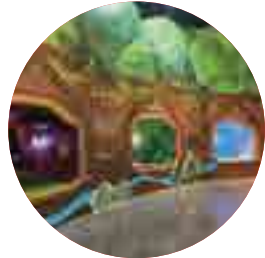
예비 창업가와 창업기관 등이 정보를 교류하고 네트워킹 하는 기회가 활짝 열렸다. 이틀간 열린 '2022 고양 창업 페스티벌'에서는 창업 토크쇼, 메이커 체험관, 기업 홍보 및 창업 상담 부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앞서 9월부터 평가를 거쳐 선정된 10개 기업은 각 분야 전문가의 투자 유치 교육과 1:1 심층 멘토링 등 피칭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지원받아 '2022 고양 IR-데이'에 참여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창업 벤처기업들이 성장동력을 얻고 발전해나갈 기대해 본다.



01



02



03



## 지구야, 아프지 마! 환경 보호, 체험으로 배워요

+ 고양어린이박물관

아이들이 트램펄린 위를 뛰어다니자 펭귄마을에 오로라가 펼쳐진다. 오직 어린이의·어린이를 위한·어린이에 의한 이곳, 고양어린이박물관은 흥미롭고 이색적인 체험으로 가득하다. 친환경 기술을 엿보고 환경문제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는 체험 현장을 따라가 본다.



04

- 01 EV6 공작소 : '나만의 EV6'를 직접 색칠하고 이름을 지어준다.
- 02 숲 속 우리집 : 청정 지역에 사는 동물들을 만나고 친환경 대체 에너지에 대해 알아본다.
- 03 바다상어 놀이터 : 바다 쓰레기의 재활용 방법을 배운다.
- 04 펭귄마을 친구들 : 트램펄린을 타면 남극마을의 오로라가 펼쳐진다.
- 05 EV6 공작소 : '나만의 EV6'가 디지털 <그린랜드> 맵에 펼쳐진다.



05

### 어린이의 미래를 함께 그리는 전시

우리시대의 자연환경은 어떤 모습인가? 미래의 자연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고양어린이박물관(이하 어린이박물관)에 가면 그 해답의 단초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2016년 개관 당시부터 <안녕? 지구!>라는 주제로 환경 관련 콘텐츠를 전시해온 어린이박물관이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호기심을 기르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2층 상설전시관을 새롭게 단장했다. 송민희 학예사는 “전기에너지는 물론 숲과 바다, 빙하 등 생태계에 관한 광범위한 환경문제를 다루고, 어떻게 하면 자연을 보호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전시를 기획했다”고 전한다.



“  
생태계에 관한 광범위한  
환경 문제를 다루고,  
어떻게 하면 자연을  
보호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전시입니다.”

”



고양어린이  
박물관



주소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26(화정동)
전시시간	오전 10시~오후 5시 30분(회차별 운영, 사전 예약)
휴관일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월요일이 법정 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 화요일 휴관)
관람료	어린이, 청소년, 성인 5,000원 / 고양 시민 3,500원(고양시 거주 입증 서류 필요) 36개월 미만, 무료 초대권 소지자,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료(입증 서류 필요)
문의	☎ 031-839-0300
홈페이지	www.goyangcm.or.kr



“

환경 문제를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며  
발견하는 체험 전시

”



### 친환경 에너지 활용으로 자연을 보호하다

「EV6와 함께하는 그린랜드(이하 그린랜드)」는 고양어린이박물관과 기아(株)가 함께 만든 환경 체험 전시관이다. 전시관은 자연환경 보호를 주제로 ‘EV6 공작소’, ‘고릴라 아지트’, ‘바다상어 놀이터’, ‘숲 속 우리집’, ‘펭귄마을 친구들’ 등 다양한 체험으로 구성됐다. 고양어린이박물관은 전시 개편을 추진하면서 어린이들이 상상하는 자연 속 모습을 실사화하고, 환경 문제를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며 발견하고 탐색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친환경 전기자동차와 함께 자연을 지키고 보호하는 방법을 알아갈 수 있도록 했다.

입구에 들어서면 ‘EV6 공작소’가 눈에 띈다. 어린이와 보호자가 나란히 앉아 자동차 도안을 색칠하고, 디지털 기기를 통해 화면으로 도안을 전송하면 스크린에 자동차가 등장한다. 도안으로 자동차를 접어 머리띠로 만들어 볼 수도 있다. 아늑한 아지트처럼 꾸며진 ‘숲 속 우리집’에서는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친환경 대체 에너지를 활용하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도록 안내한다.

### 동물 친구들의 아픔에 공감하다

단순히 흥미만을 위한 전시가 아니다. 어린이들이 체험을 통해 환경오염으로 아파하는 자연을 공감하도록 하며, 환경보호를 행동으로 옮기는 방법을 익히도록 돕는다. ‘바다상어 놀이터’에서는 낚싯대로 바다에 버려진 쓰레기를 주워 올려 바다에 사는 상어들을 구하고, ‘고릴라 아지트’에서는 자연환경의 변화로 집과 먹이가 사라져가는 멸종 위기 동물에 대해 학습한다. 또, 동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행동을 익히도록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메시지를 전달한다.

여러 체험공간 가운데 단연 인기가 높은 곳은 ‘펭귄마을 친구들’이다. 어린이들이 이글루처럼 생긴 공간에 조성된 트램펄린 위를 뛰면, 펭귄마을에 눈이 내린다. 자신이 만들어낸 친환경 전기에너지가 지구 온난화로 사라져가는 펭귄의 서식처인 남극을 지킬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마련한 코너다.

어린이의 오감 발달부터 환경보호 실천까지 체험 가능한 전시 ‘그린랜드’는 앞으로 2년간 탐험할 수 있다. 향후 콘텐츠 업그레이드도 예정되어 있어, 보다 쉽고 재미있게 환경보호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린랜드 관람을 원한다면 고양어린이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전시 관람권을 예매하면 된다.



### Mini Interview



#### 강희정·김태연 모녀(주엽동)

아이가 고양어린이박물관을 좋아해서 종종 이곳을 방문해요. 이전에도 2층 상설전시관에서 환경 관련 전시를 보곤 했는데, 이번에 새로 개편하면서 체험 거리가 더욱더 다양해졌어요. 교육적인 주제와 체험이 함께 있어 유익합니다.



#### 권효진·정지원 모녀(서울 수색동)

친언니가 고양특례시에 살아 평소에 자주 와요. 고양어린이박물관을 추천받아 방문했는데, 실제로 아이들이 보고 체험할 거리가 무척 많네요. 아이들이 체험을 통해 환경 문제를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쓰레기 대란을 피하는 법

2026년부터는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선별이나 소각 없이

직매립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대란이 예고된다.

현재 고양특례시가 운영하는 쓰레기소각장은 2010년 지어진 백석소각장이 유일하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규 소각장 입지 후보지 선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글. 홍수열  
-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 저서 『그건 쓰레기가 아니라고요』 『지금 우리 곁의 쓰레기』

## 쓰레기 직매립 금지…대란이 다가오고 있다

지난 2018년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발생한 폐비닐 수거 대란 이후 쓰레기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쓰레기 문제는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다. 쓰레기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처리시설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고양특례시도 예외가 아니다. 고양특례시는 매일 300톤~310톤의 종량제 봉투 쓰레기가 발생하는데 쓰레기를 태울 수 있는 소각장 용량은 230톤에 불과하다. 인구는 증가하는데 소각장 용량은 확대되지 않고, 소각장에서 태우지 못한 쓰레기는 수도권 매립지로 보내고 있다.

그런데, 앞으로는 수도권 매립지 이용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금처럼 쓰레기를 매립할 경우 2027년이 되면 현재 이용 중인 수도권 매립지 제3-1매립장(인천시 서구)은 수명이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체결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환경부 4자 합의에 따라 현 매립지가 종료될 경우 나머지 땅을 매립지로 활용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 수도권 매립지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매립지 공모를 2021년 두 차례 했건만 공모에 참여하는 지자체가 없어 무산되었다. 대체 매립지를 구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에 가깝다. 더욱이 2021년 7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2026년 1월부터 수도권 지역은 생활쓰레기의 직접 매립이 금지된다. 종량제 봉투 그대로 매립하면 안 되고 소각 후 소각재를 매립해야 한다. 만약 이 규정을 어길 경우 해당 지자체는 징역 2년 이하 혹은 벌금 2천만 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소각장 용량이 부족한 지자체는 조속히 안정적인 소각용량을 확보해야만 쓰레기 대란을 피할 수 있다. 고양특례시는 하루 650톤 용량의 소각장을 신규로 건설할 계획이지만 소각장 입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남은 시간은 얼마 없는데 소각장 설치에 계속 지연되고 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

## 소각장에 대한 과도한 공포에서 벗어나야

쓰레기를 소각할 경우 다이옥신을 비롯한 오염물질이 굴뚝으로 배출되는 것을 우려하는 주민이 많다. 하지만 최신 오염방지시설을 갖춘 소각장은 주민들이 우려할 수준으로 오염물질이 배출되지는 않는다. 1990년대 후반부터 대도시 지역에서는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대규모 소각장을 운영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소각장 운영경험과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다. 소각장 운영을 마음대로 할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자동굴뚝장치를 통해 실시간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감시하고 있다. 자동굴뚝장치는 운영자가 임의로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조작은 불가능하다. 주민들 눈에 미치지 않는 곳에서 영터리로 쓰레기를 태울 것이라는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도시 지역 소각시설 주변 주민대상으로 환경 및 건강 모니터링 결과 건강상의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없다. 서울시는 전국에서 가장 큰 대규모 소각장을 4곳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20년 동안 주변지역 거주 주민들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소각장으로 인한 영향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오래된 소각시설을 제외하고 현대 소각시설을 운영함으로써 주변지역에 영향을 미친 사례는 없다. 따라서 과도한 공포에 짓눌릴 필요는 없다.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쓰레기와 공존하는 방법을 찾아야

쓰레기가 전혀 없는 세상으로 갈 수는 없다. 도시에서 쓰레기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가 나온 지역에서 쓰레기를 우선 처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각장을 무조건 배척하기보다 소각장이 도시 내에서 공존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혐오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시설, 사람들이 찾아오는 랜드마크형 시설이 되어야 한다. 또한 공원 및 다양한 편의시설을 지어서 주민들의 사랑 받는 지역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 지원도 필요하다.

무조건 안 된다는 편견을 내려놓고 냉정하게 실리를 따진다면, 소각장 설치에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역발전의 디딤돌이 될 수도 있다.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수도권 매립지 제3-1 매립장 전경



## 새해의 시작 ‘작은 설’ 동지

# 동지

동지는 태양이 황도(黃道) 270도에 이르는 때로, 24절기 중 22번째 절기다. 사계절을 천문학적으로 구분하는 기준인데, 올해는 12월 22일에 든다. 동지는 예로부터 지켜온 속절(俗節)로서 지켜온 풍속이라 음력 명절 같지만 사실상 양력 절기다.

글. 정현미(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관)

**동짓날은 밤이 제일 길다!  
그러나 동짓날부터 밤은 짧아지고 낮이 길어진다!**

고려시대 이색은 『목은집』에서 “동지에는 음(陰)이 극도에 이르러서 이 때문에 일양(一陽)이 생기는 것이라”고 하였다. ‘낮’이 동지로부터 점차 길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를 옛사람들은 ‘태양이 죽음으로부터 부활하는 날’로 여겼고, 새로운 시작, 재생, 태양의 부활 등 종교적 상징성을 갖게 되었다. 『농가월령가』 11월령에서는 동지는 ‘명일(明日)’이라 하여, 경사스럽게 여겨 속절(俗節)로 삼았으며, ‘동지하례(冬至賀禮)’, ‘동지책력(冬至冊曆)’, ‘동지헌말(冬至獻襪)’, ‘동지시식(冬至時食)’ 등 다양한 풍속이 생겼다. 동지하례는 관리들이 설날처럼 동지 아침에 궁에서 문안 인사를 올렸던 풍속이다. 동지책력은 이때 만든 책력을 나누어 주며 선물하던 것이며, 동지헌말은 이때 부모님의 장수를 기원하면서 버선을 지어 올리던 풍속이다. 특히 동짓날에 한 해를 무사히 보내게 된 데 대한 감사와 새해의 안녕을 기원하면서 동지차례, 동지불공 또는 동지고사를 지내는데, 대개 ‘팔죽제’로 지내기에 ‘팔죽’은 대표적 동지시식이 되었다.

**붉은색 동지팔죽은 왜 동지음식이 되었나?**

『동국세시기』에 팔죽을 동지시식으로 기록하였는데, 오늘날에도 동지에 ‘동지팔죽 먹는 날’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이색은 “동지에 팔죽 먹어 오장을 깨끗이 씻으니 혈기가 조화 이루어 평온하여라”고 말했으며, 『의림촬요』에는 동지팔죽으로 역질을 막는다고 했다. ‘동지팔죽’이 건강에 좋고 질병 예방 효과가 있다고 여겼음을 알 수 있다. 『해동죽지』를 보면, 동지에는 붉은 팔죽을 문에 뿌려 부적을 대신한다고 하여, 벽사(辟邪)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민간에서도 동짓날 팔죽을 쑤어먹지 않으면 쉬이 늙고 잔병이 많이 생기며 잡귀가 성행한다고 여겼으며, 동지팔죽을 먹으면 잔병을 없애고 건강해지며 액을 면할 수 있다고 하여 이웃 간에 나눠 먹었다. 동지팔죽을 사당에 ‘천신(薦新)’하고, 방, 마루, 광, 헛간, 우물, 장독대에 한 그릇씩 떠놓아 두거나, 대문이나 벽, 혹은 마을 입구의 신목(神木) 등에 뿌려서 나쁜 기운을 쫓아내고자 하였다. 이는 동짓날이 밤이 가장 긴 날이기도 하였기에, 양(陽)의 색을 가진 붉은 팔으로 벽사와 제액을 하는 ‘제액초복(除厄招福)’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작은 설날에 ‘나이 먹는 법’… 흰색 나이 떡, 새알심**

『동국세시기』에 동짓날은 ‘작은 설(亞歲)’이라 하여 동지팔죽에 찹쌀 새알심을 넣어 만든다 했는데, 이는 ‘동지를 지나야 한 살 더 먹는다’는 ‘동지첨치(冬至添齒)’의 뜻이 담겨있다. 설날의 ‘떡국 한 그릇’처럼 동지팔죽 새알심이 나이 떡이다. 특히 동지팔죽은 팔죽에 흰 떡 경단을 넣어 끓이는데, ‘새알심’의 수(數)가 나이를 뜻하였기에, 끓일 때 가족의 나이 수대로 새알심을 넣는다. 특히 새알을 자기 나이 수대로 먹어야 운수 좋다고 여겼으니, 많이 먹어야 하는 노인들에게는 곤란하기도 했다. 그래서 작게 만들거나, 크기가 다르게 만들어서 나이를 세는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내기에 이른다. 청송읍 송생리에서는 큰 새알 한 알은 열 살, 중간 것은 다섯 살, 작은 새알은 한 살로 나이에 맞게 새알 크기를 조절했다. 또한 새알심으로 재수를 점치기도 하였다. 영주에서는 ‘용알’이라 하여 크게 만든 새알을 보통 크기의 새알과 섞어 끓이는데, 용

알이 든 팔죽을 먹는 사람은 재수가 좋다고 여겼다. 오늘날에는 나이 수대로 먹는 풍속들이 많이 희석되어, 새알심 동지팔죽을 먹으면 나이 한 살 먹었다고도 여긴다.

**동지에는 항상 ‘동지팔죽’을 먹는다?**

꼭 그렇지만은 않다. 양력 절기를 음력과 연관시키면서 예외가 생겼다. 민간에서는 동짓날이 음력 11월 초순에 들면 애동지, 중순에 들면 중동지, 하순에 들면 노동지라 한다. 올해는 음력 11월 하순에 들었으니, 노동지이다. 대개 애동지 때는 아이에게 좋지 않다고 팔죽 대신 팔시루떡을 해먹는 풍속이 일반적이다. 또한 괴질이나 염병으로 죽은 조상이 있는 집에서도 팔죽을 쑤지 않는다.

**동지팔죽의 또 다른 의미**

고려시대에 동지팔죽은 부모님의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도 담고 있었다. 14세기의 『익재집』에는 동짓날에 동지팔죽을 끓여 고운 옷을 입고 부모님의 장수를 기원하며 술을 올렸다고 기록하고 있으니, 경로사상도 볼 수 있다. 고려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동지시식 동지팔죽은 나쁜 일은 없애버리고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는 기원의 음식이다. 이를 부모님께 드리며 장수를 기원하고, 이웃과 함께 나누면서 모두 행복해지는 삶을 꿈꾼 것이다. 과거 의약 등 과학기술이 발달하지 못했던 시대에 질병이나 나쁜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가정에서 손쉽게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이기도 했으니, 옛 사람들에게 동지팔죽은 간절한 기원의 발현이기도 하다.









# 은빛 하모니가 만드는 선율, 꿈과 희망을 선물하다

+ 탄현1동 실버동요합창단



## 노래를 흥얼흥얼



탄현1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목요일 아침마다 어르신들의 아름다운 합창 소리가 울려 퍼진다. 연습에 몰입하는 이 시간이면 ‘실버동요합창단’ 어르신들은 음악과 하나가 된다. 조금은 서툴지라도 진심을 담아 노래하기에 더 아름다운 실버들의 합창. 그래서인지 듣는 이의 마음은 금세 촉촉해진다.

### 동요를 부르며 동심으로 돌아가다

‘얼어붙은 달그림자 물결 위에 자고 한겨울의 거센 파도 모으는 작은 섬’

탄현1동 행정복지센터에 들어서자 아름다운 노랫말이 귓가에 울려 퍼진다. 동요 ‘등대지기’의 가사가 서정적인 선율을 타고 가슴에 꽃힌다. 학창 시절 음악실에서 울려 퍼지던 소녀 소년들의 합창이 떠오를 만큼 맑은소리에 이끌려 발걸음을 옮겨보니 탄현1동 실버동요합창단(이하 합창단) 단원들이 노래에 집중하고 있었다.

올해 8월에 창단한 합창단에는 20여 명의 어르신이 활동하고 있다. 어르신들이지만, ‘동요합창단’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동요’만을 부른다. ‘과수원길’, ‘텃밭에서’, ‘노을’, ‘초록빛 바다’ 등 다양한 동요 레퍼토리를 소화해낸다. 어르신들만의 감성에 세월의 깊이까지 더해진 합창단의 동요는 또 다른 매력을 선사한다. 조경순 탄현1동 주민자치회장은 어르신들이 동요를 부르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덩달아 행복해진다고 미소를 짓는다.

“어르신들이 자유롭게 소통하며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끝에 동요를 떠올렸어요. 동요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힘이 있거든요. 아름다운 노랫말을 음미하다 보면 마음이 따뜻해질 뿐만 아니라 옛 추억을 소환하기도 합니다.”





### 노래하며 느낀 행복을 전파하다

허리를 곧게 펴고 노래에 집중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지만, 어르신들의 입가에는 미소가 떠날 줄 모른다. 어르신들은 “노래를 부르면 부를수록 힘이 난다”며 함박웃음을 짓는다. 어느새 진한 우정을 나누게 된 단원들은 노래와 삶을 함께 이야기하며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있다.

때로는 자신도 모르게 코끝이 찡해지거나 눈물이 가득 차오르는 순간도 마주한다. 이정자(68, 탄현1동) 어르신은 “어느 날 ‘오빠 생각’을 부르는데, 돌아가신 오빠 두 분 생각에 눈물이 나서 노래를 할 수가 없었어요. 단원들이 부르는 ‘오빠 생각’이 제 마음을 토닥여주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게 노래의 힘인 것 같아요”라고 말한다.

실버동요합창단 활동을 통해 꿈을 이룬 단원도 있다. 방규옥(69, 탄현2동) 어르신은 “손자가 노래 부르는 걸 보면서, 어릴 적부터 노래를 좋아하고 즐겨 부르던 제 모습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버동요합창단 창단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가입했어요. 노래 부르는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라며 합창의 즐거움을 전했다.



### 고양에서 울려 퍼지는 사랑의 하모니

하나의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합창에 대한 어르신들의 참여와 열정은 어느 젊은이보다 뜨거웠다. 좀처럼 맞지 않을 것 같던 합이 끝내 맞춰졌다. 연습과 연주에 몰입하며 연습을 이어온 결과였다. 지난 9월 ‘당장고 플리마켓’과 10월 ‘숯향기 마을축제’에서 어르신들은 그간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멋진 공연을 선보였다. 단원들의 무대는 한 편의 드라마처럼 깊은 울림을 선사했다. 객석에서는 중간중간 박수갈채가 이어졌다.

어르신들은 그때 온몸으로 느꼈던 울림과 전율을 잊지 못한다며, 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노래를 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한 소절, 한 소절에 열정을 쏟는 어르신들이 전하는 하모니는 새해에도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전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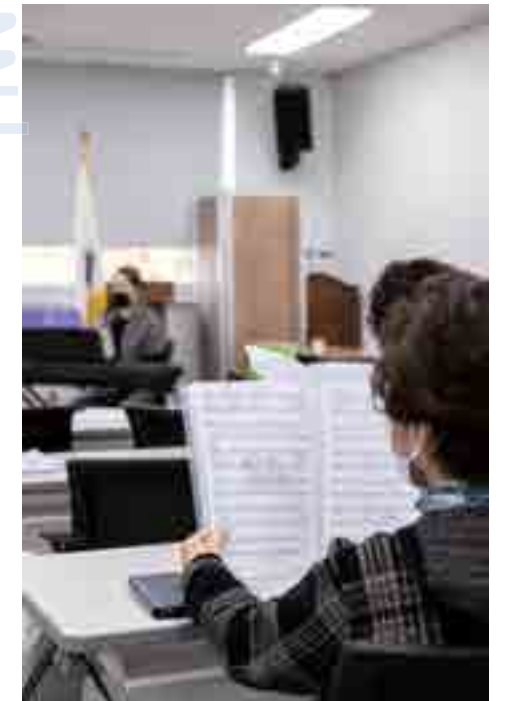


“  
도전과 희망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실버동요합창단이 찾아갑니다  
- 조경순 탄현1동 주민자치회장 -

## 즐거움은 두 배로



**참여 조건** 50대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연습 장소** 탄현1동 행정복지센터 2층  
**활동 시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11시 30분  
**문의** ☎ 031-8075-7817





## 빙상 위 뜨거운 승부사

곽윤기 & 김아랑 쇼트트랙 선수

겨울 빙상 스포츠의 꽃, 쇼트트랙.  
‘간판 스타’를 꼽으라고 하면 단연  
고양시청 소속 곽윤기, 김아랑 선수를  
떠올리게 된다. 2022 베이징동계  
올림픽의 기세를 이어 2022-2023  
쇼트트랙 시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들을 만났다.



김아랑 선수(2018년 고양시청 입단) 수상내역

- 2022년 — 제24회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 은메달
- 2019년 — 제29회 동계유니버시아드 쇼트트랙 여자 1,000M 금메달  
제29회 동계유니버시아드 쇼트트랙 여자 1,500M 금메달
- 2018년 — ISU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3,000M 계주 금메달  
제23회 평창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 금메달



곽윤기 유튜브  
(곽 잡아윤기)



김아랑 유튜브  
(김아랑)

### 스케이트 날 하나에도 걸리는 승부의 세계

쇼트트랙은 변수가 많은 종목이다. 함께 타는 선수보다 먼저 들어와야 승리하는 ‘경쟁 경기’인 까닭에 스케이트 날이 결승선을 통과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 1등으로 결승선을 통과해도 여러 가지 이유로 결과가 뒤바뀌기도 한다.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도 예외는 아니었다. 경기를 지켜보던 국민들이 판정 문제로 인해 가슴앓이를 해야만 했다. 당시 첫 메달이 걸린 쇼트트랙 혼성계주부터 석연치 않은 판정이 나왔고, 이후로도 공정성 문제는 계속 도마 위에 올랐다. 그럼에도 고양시 쇼트트랙팀 곽윤기·김아랑 선수는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에서 당당히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만형으로서 당시 대표팀을 이끌었던 곽윤기 선수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예기치 않은 상황도 받아들이야 하는 것이 선수의 몫이라 최대한 담담해지려고 했어요. 그런데 요즘 친구들은 그런 상황도 금방 hull을 털어 버리는 걸 보면, 후배들에게 배울 것이 많다고 느꼈습니다”라고 회상했다.

### 고양시 쇼트트랙팀도 응원해주세요

지난 11월 2022-2023 시즌, 쇼트트랙 월드컵과 세계선수권대회의 막이 올랐다. 곽윤기 선수와 김아랑 선수도 시즌을 시작하며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있다. 김아랑 선수는 지난 11월 열린 제1회 국무총리배 전국남녀쇼트트랙·스피드스케이팅대회 1,500m 결선에서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하며 정상을 차지했다. 올해 부상으로 대표 선발전을 기권했던 김 선수는 “컨디션이 얼마나 올라왔는지 궁금했던 차에 기대보다 좋은 성적이 나와서 앞으로의 활동에 자신감이 생겼어요”라고 전한다. 곽윤기 선수는 플레잉 코치로서 선수들과 함께 뛰며 고양시 쇼트트랙팀의 실력과 사기를 높이는 데 한몫하고 있다. 곽 선수는 국가대표로 활약 중인 임용진, 홍경환 선수와 차세대 유망주로 주목받는 김기찬, 김대한 선수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응원도 당부했다.

빙상 안팎으로 맹활약하며 고양시 쇼트트랙의 위상을 높여준 두 선수가 있기에 대한민국 쇼트트랙의 미래는 더욱 빛이 난다.

곽윤기 선수(2014년 고양시청 입단) 수상내역

- 2022년 — ISU 세계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대회 남자 1,000M 동메달  
ISU 세계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대회 남자 5,000M 계주 금메달  
제24회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5,000M 계주 은메달
- 2018년 — ISU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5,000M 계주 금메달
- 2015년 — ISU 쇼트트랙 월드컵 5차 대회 남자 500M 동메달



“

곽윤기 선수

올림픽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제대회도  
관심 있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시민들이  
쇼트트랙을 더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저 역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김아랑 선수

2018년부터 고양특례시에서 지내다 보니  
이제는 이곳이 집처럼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앞으로도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는 선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꿈을 펼치다

### + 인공지능 농작물 병충해 진단 시스템 개발자

해충으로 인한 작물 손실과 농작물 품질 저하 등을 최소화하려면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

고양특례시 청년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방제비용 감소와 선제적 대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는 ‘팜 페어리(Farm Fairy)’ 개발팀의 손동우 씨를 만났다.



### 농작물의 병충해, 스마트폰 앱으로 진단하다

주말농장 등을 이용해 농작물을 키우는 이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정성껏 키운 농작물이 병충해로 무용지물이 되는 일을 종종 경험하곤 한다. 손동우 씨가 개발에 참여한 인공지능 농작물 병충해 진단 시스템 ‘팜 페어리(Farm Fairy)’는 농작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나 주말농장 입문자들을 대상으로 병충해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한다. 이 시스템은 노지 농작물에서 생기는 각종 질병과 관련한 사진을 분석해 스스로 학습함으로써 병충해 진단 능력을 높이도록 설계되었다. 사용자가 농작물의 병충해 사진을 업로드하면 병명 진단과 더불어 전염경로, 발생환경, 병의 증상, 방제 방법 등을 알 수 있다.

기존에도 인공지능 농작물 병충해 진단 시스템은 있었다. 하지만 고추, 감귤 등 소수의 특정 작물에 국한되었다. 하지만 손동우 씨 팀이 개발한 시스템은 콩, 파, 오이, 호박 등 일반인들이 주로 키우는 10여 가지 작물을 대상으로 50여 가지 병충해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

이 시스템의 장점은 병과 해충으로 분류해 정확도가 높은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국가농작물병해충관리시스템(NCPMS)에서 제공 받은 정보를 적용했기 때문에 높은 신뢰도를 자랑합니다.

”

### 새로운 경험을 통해 더 큰 목표가 생기다

대학교에서 소재공학을 전공한 손 씨는 졸업 후 IT 개발자의 꿈을 키워왔다. 막연했던 그의 꿈은 ‘고양 희망 청년인턴’ 과정과 ‘공공일자리사업’에 참여하면서 이뤄졌다. 전문가들의 지원을 받은 그는 ‘양질의 서비스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자신만의 해답을 찾아 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빅데이터를 이용해 실제로 구동 가능한 시스템을 완성했을 때 느낀 희열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컸다. 손 씨는 올 연말 안드로이드 기반의 앱을 출시한 후 앱스토어에서도 선보일 계획이다. 또, 양질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개발자 업무가 제 생각보다 훨씬 흥미롭고 재미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앞으로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이용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앱 개발에 다시금 도전할 생각입니다.”

그는 꿈을 향해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지금 이 순간이 진심으로 행복하다고 말한다. 자신의 미래에 대해 멋진 청사진을 그리는 손동우 씨. 꿈을 향해 열심히 달리고 있는 그의 내일을 응원한다.



인공지능 농작물 병충해 진단 시스템



## 모락모락 빵 굽는 냄새 따라 꿈과 희망이 피어나요

+ 사회복지법인 애덕의집 소울베이커리



소울베이커리



소울베이커리에는 특별한 제빵사들이 있다. ‘정직한 빵’을 만든다는 자부심으로 우리 밀과 쌀로 건강한 먹거리를 만드는 발달장애인들이 바로 그들이다. 올해로 창립 25주년, 빵과 함께 행복을 굽고 있는 소울베이커리를 찾았다.

주소 고양시 덕양구 삼원로 102(원흥동)  
문의 ☎ 031-964-9380~2

### 정직한 빵을 만들기 위한 약속

이른 오전부터 빵 굽는 냄새가 솔솔 풍긴다. 덕양구 벽제동에 위치한 소울베이커리에서는 재료, 반죽, 성형, 포장 등 단계별로 빵이 만들어진다. 작업장에는 제빵사 복장을 한 발달장애인들이 모여 각자 수행해야 할 업무를 하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다. ‘우리밀 100%’, ‘우리쌀 100%’, ‘유정란’, ‘무(無)보존료’, ‘국산원료지향’... 정직한 빵을 만들겠다는 소울베이커리의 약속이다. 좋은 재료를 선별하는 것은 물론이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해썹(HACCP) 안전관리인증을 받아 식품의 가공, 보존, 유통 등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등 안전성까지 확보했다.

소울베이커리의 출발은 소박했다.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서울관구에서 운영하는 비영리기관인 ‘애덕의집’에서 생활하는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먹거리를 만든 것이 시작이었다. 점차 장애인들에게 일자리가 만들어지면서 베이커리의 규모가 커졌다.

2007년, 고양특례시와 첫 인연을 맺게 되면서 고양에서 재배한 쌀로 케이크를 만들게 되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케이크는 고양시에 출생 신고하는 가정에 탄생 축하 선물로 전달되었다. 김혜정 애덕의집 소울베이커리 원장은 “고양특례시와 시민들이 우리 제품을 믿어준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 + 소울베이커리

1997년도에 프로그램 형식으로 쿠키작업을 시작한 소울베이커리는 현재 우리밀과 유기농 재료를 사용하여 빵과 케이크, 쿠키를 생산하고 있으며, 베이커리 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다.



### 배려를 나누다

현재 소울베이커리에 근무하는 발달장애인 구성원은 35명, 비장애인 구성원은 18명에 달한다. 단순 작업을 지루해 하지 않고 좋아하는 분야에 대한 집중력이 높아 10년 이상 근무한 구성원들도 많다. 10년 장기근속 구성원에게는 이탈리아 해외 연수 기회도 제공된다. 가족의 보살핌을 받던 발달장애인들이 월급을 받아 저축하면서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인지 자신들이 만드는 빵에 대한 자부심도 강하다.

소울베이커리에서 매일 생산된 제품 중 일부 제품은 취약계층에 온정을 전하고 있다. 2004년부터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를 통해 매출의 일정 금액을 매월 우리 밀 생산 농가를 위해 후원하며, 2010년부터는 인근 지역 시각장애인협회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에게 빵을 전하고 있다. 또한 매년 12월부터 2월까지 3개월 동안은 겨울철 노숙인들의 동사 방지를 위한 순회활동에 함께한다.

어느덧 창립한 지 25년, 그동안 빵을 만드는 구성원들의 역량과 노하우도 한층 탄탄해졌다. 생산 능력과 좋은 품질을 인정받으면서 거래처도 늘었다. 구매자 겸 후원자들은 ‘믿고 먹는 소울베이커리’라며 힘찬 지원을 보낸다. 우리 사회를 따뜻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일, 소울베이커리 덕분에 건강한 빵을 먹으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법을 배워간다.





## 희망을 전하고 기쁨을 나누는 행복공동체

+ 원흥종합사회복지관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원흥종합사회복지관은 고양특례시에 있는 9개의 복지관 중 규모는 가장 작지만, 지역 주민들과 연대하는 힘은 어느 곳보다 강하다고 자부한다. 늘 지역 주민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원흥종합사회복지관 사람들을 만나왔다.



### 따뜻한 손길이 가장 필요할 때

원흥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은 2015년 문을 연 이래 지역 주민들의 소통 공간이자 이웃들의 행복과 기쁨, 그리고 슬픔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장소로 자리매김해왔다. 홍도동과 삼송2동 지역 주민들을 위한 교육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다양한 주민 모임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구심점 역할도 담당한다. 특히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위치한 만큼,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서비스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확산은 복지관의 이러한 노력에 제동을 걸기 충분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이 낮은 어르신이나 독거 어르신들은 고립과 단절의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사회복지사들은 이러한 어르신들을 외면할 수 없었다. 이전보다 더 열심히 현장을 뛰어다니며 고군분투했다고 천미숙 관장은 당시를 회상한다. “건강이 좋지 않은 어르신들은 도시락 서비스 등 방문 서비스를 연계해 안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도시락을 받은 어르신들은 ‘내가 살아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데 위로와 용기를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직접 소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눈빛과 말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걸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 함께하는 세상을 그리다

원흥종합사회복지관의 시선은 지역 구석구석을 향해 있다. 기다리는 복지를 지양하고 주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복지관이 지향하는 길이다. 현장의 작은 목소리를 모아 커다란 울림으로 전하기 위해 복지사들은 머리를 맞댔다. 주민들과의 소통을 이어 나가기 위해 비대면 형식의 서비스를 늘렸고,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발맞춰 모임이나 축제 등을 적극적으로 기획·운영했다. 복지관의 이러한 따뜻한 손길에 주민들의 반응 역시 뜨거웠다. 연말이면 어려운 이웃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려온다. 함께 돕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힘든 일이 있을 때 함께 돕고 함께 힘을 모은다면 힘든 세상을 헤쳐 나가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원흥종합사회복지관 직원들.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불꽃은 작은 희망에서 시작된다.



천미숙 관장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많은 적은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놓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이것이 바로 연대의 힘을 느꼈습니다.



최진나 사회복지사

‘꿈디자인어’라는 진로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아이들이 해맑게 웃게 되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때 제가 하는 일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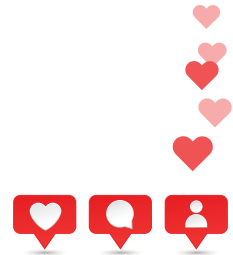
주소 고양시 덕양구 삼원로 102(원흥동)  
홈페이지 [www.whsw.or.kr](http://www.whsw.or.kr)  
문의 ☎ 031-964-9380~2



# 연예가를 달리던 리포터 더 큰 세상으로 뛰다!

방송인 김태진

한 주간의 연예계 소식을 전하는 자리에 늘 ‘김태진’이 있었다. 연예 리포터로 탄탄히 입지를 굳힌 그에게는 국내 연예 리포터계의 ‘역사’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다. 이제 리포터를 넘어 유튜브와 라이브 커머스 등으로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만능엔터테이너 김태진을 만났다.



## 묵묵히 그리고 꾸준히

정확하고도 다채로운 표현력을 동원해 연예계 뉴스를 전한다. 주로 듣는 사람의 위치에서 질문을 던진다. 프로그램 감초로 묵묵히 제 역할을 수행하며 20년차 연예 리포터라는 자기만의 역사를 썼다. 리포터 김태진의 이야기다. KBS2 <연예가중계>가 <연중Live>으로 이름이 바뀌고, MC들이 계속 교체되는 동안에도 김태진은 변함없이 프로그램을 지켰다.



주변에서 종종 ‘장수의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면  
‘무색무취’라고 이야기해요. 연예인 소식을 전하는 게  
제 직업이자 역할이다 보니  
튀면 안 된다고 늘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묵묵히 그리고 꾸준히 일하면서  
지금의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리포터를 시작할 당시 그의 나이 불과 24살. 2001년 Mnet 공채 9기 VJ(Video Jockey)로 데뷔한 그에게 연예 리포터는 방송가에 자신을 알리는 기회였다. 불과 5분, 10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임팩트 있는 인터뷰를 끌어내야 하니, 순발력은 기본이고 기획력까지 자연스레 체득하게 되었다. 그동안 쌓인 신뢰 덕분에 인터뷰 때마다 먼저 김태진을 찾는 스타들도 생겨났다.

대중이 연예계 소식을 접하는 경로가 다양해진 요즘 공중파 연예 프로그램의 위상은 과거와 달라졌고 녹화도 많이 축소되었다.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고 더 큰 세상으로 날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김태진 라이브 커머스 채널



## 방송 이력

- 2001년 — MNET 공채 9기 VJ 데뷔
- 2018년 — KBS 연예대상 베스트엔터테이너상
- 2020년 — 제27회 KBS 연예대상  
베스트 팀워크상(연중 라이브)

## 제2의 고향에서 다방면 활약

빠르게 변화하는 흐름 속에서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특유의 성실함과 노력을 증명이라도 한 듯 기회는 곧 찾아왔다. 2018년 모바일 라이브퀴즈쇼 <잼라이브>를 진행하며 ‘잼 아저씨’ 열풍을 일으켰고, 그동안 쌓은 내공을 유감없이 드러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행사가 활성화되면서 ‘비대면 진행은 김태진이 잘한다’는 반응이 나왔어요. 예전에 좋은 평가를 받은 경험 덕분에 자신 있게 진행할 수 있었고요. 팔로워를 기반으로 소통하다 보니 책임감도 느낍니다. 그래서 매일 상품 공부와 효과적인 전달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필요한 자리라면 어디든 보탬이 되고 싶다는 방송인 김태진. 2009년, 그는 결혼이라는 인생의 전환기와 함께 고양특례시와 첫 인연을 맺었다. 식사동을 거쳐 삼송동에 보금자리를 튼 김태진은 “고양시가 제2의 고향처럼 느껴진다”고 말한다. 고양특례시민으로 살아가는 그의 제2 전성기를 응원해본다.





## 자연이 빚어낸 경이, 길에서 만난 즐거움

+ 송강누리길

원당천 독길에서 출발해 곧바로 공릉천과 만나는 송강누리길 곳곳에는 이야기가 숨쉬고 있다. 한 걸음 한 걸음 사색하며 걸을 수 있는 이 길은 삶의 침표가 되는 시간을 선사한다.



### 송강누리길 시작과 끝

고양누리길은 시작과 끝이 없다. 어디든 들어서면 그곳이 시작점이고, 발길을 멈추면 그곳이 끝점이다. 그것이 나만의 코스를 만들어 걷는 재미 중 하나일 것이다. 첫 걸음의 송강누리길은 고양 6·25참전기념비와 필리핀군 참전기념비를 바라보면서 시작되었다. 6·25참전기념비는 참전용사들의 넋을 기려 2001년 설립한 비로, 2003년 국가현충시설로 지정되었다. 그 옆에 자리한 필리핀군 참전기념비는 필리핀과의 영원한 우의를 기념하고, 전쟁 기간 중 목숨을 바친 필리핀 장병의 영혼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한 비다. 높게 하늘을 향해 솟아오른 탑신은 그 날의 위용을 자랑한다. 탑 아래 부조의 모습은 필리핀의 민속 문화를 표현하고 있으며, 조각된 50명의 모습과 표정은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자유와 평화를 추구하고 있다.

주소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154-8



“

래양같이 밝고 불타는 정열의 기상을 지닌 삼성좌의 용사들!  
한국의 평화와 자유를 위해 흘린 468명의 고귀한 영혼을 위해 하나님의 가호가 영원하리라.

”

- 필리핀군 참전기념비 비문 中 -





## 공릉천 물길따라, 큰 나무 사이로

공릉천은 양주에서 발원해 고양과 파주를 거쳐 한강으로 합류하는 하천으로, 파주 삼릉 중 하나인 공릉(恭陵)에서 유래했다. 일제강점기 조선왕실을 폐쇄하려는 의도에서 곡릉천(谷陵川)이라는 왜곡된 명칭이 붙여져 오랫동안 사용되다가, 2009년에서야 원래 이름을 되찾았다.

주민들의 여가 생활을 담당하는 공릉천 문화체육공원을 가로지르면 물줄기를 따라 갈대와 부들이 바람을 타고 살랑살랑 인사를 건넨다. 곳곳에서 하천을 찾는 생명들의 호흡하는 소리가 힘차게 들려온다. 다음 목적지는 메타세쿼이아길. 건너갈 때 꼭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는 돌다리를 완전히 건너가지 말고 중간에 멈출 것. 바로 북한산이 한눈에 담기는 포토존이기 때문이다. 공릉천에 비친 북한산의 반영을 촬영하는 명소로 소문나 사진가들이 즐겨 찾는 곳이기도 하다.

돌다리를 다 건너면 쪽 뺨은 수십여 그루의 메타세쿼이아 나무가 아름다운 가로수길을 마주한다. 자전거를 타거나 산책하기에 더없이 좋은 길이다. 양쪽으로 차가 다닐 수 있지만 폭이 좁아 바뀌는 언제나 ‘천천히’ 굴러간다. 여유로움이 깃든 마을 사람들의 마음과 꼭 닮아 있다.

주소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내유동 일원



## 월산대군과 송강 정철의 숨결

월산대군의 숨결을 따라 도착한 곳은 월산대군 사당인 석광사(錫光祠)다. 월산대군은 조선 임금 세조의 만손자이자 성종의 친형이다.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79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영조 임금 때 중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작고 단아한 건물을 네모반듯한 담장이 두르고 있다. 사당 앞뜰에는 수령이 250년이나 된 회화나무가 서있는데, 수명을 다한 듯 가지는 모두 잘리고 나무 기둥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월산대군은 특히 고양특례시와의 인연이 깊다. 월산대군은 생전에 고양 북촌에 별장을 두고 살았으며, 죽어서도 부인 순천 박 씨와 함께 고양에 묻혔다. 월산대군의 묘와 신도비는 고양에 산재한 수많은 역사유적을 제치고 고양시 향토문화재 제1호로 지정되었다.

이 누리길에는 조선시대 가사문학의 대가 송강 정철(松江 鄭澈, 1536~1593)의 흔적도 곳곳에 남아 있다. 부모님의 묘소가 있는 신원동 뿐만 아니라 송강누리길이 지나는 일대에는 송강마을, 송강들, 송강고개, 송강보 등 송강 정철과 관련된 지명과 일화들이 가득하다. 송강공릉천공원에서는 정철을 기념하는 다양한 조형물과 함께 그의 작품을 자연석에 새겨 넣은 아름다운 시비들도 감상할 수 있다.

월산대군사당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1243-39(신원동)  
송강시비공원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송강마을 인근 호국로 국도변

“  
아버이 살아신제 섬길일란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닦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  
- 훈민가 16수 중 4수의 자효(子孝) 中 -



# 보다 가까이, 더 친근히 동물 친구들과 교감해요

+ 꼬꼬체험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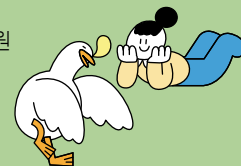
추운 날씨 탓에 야외활동이 쉽지 않은 겨울, 실내 체험 동물원으로 특별한 여행을 떠나보자. 도심 속에 자리한 꼬꼬체험관에서는 동물들을 눈앞에서 관찰하고 또 직접 만져볼 수 있다. 이달의 고양특례시의 핫스팟, 우수 체험 농장인 ‘꼬꼬체험관’을 소개한다.



꼬꼬체험관



**운영시간** 매일 09:00 ~ 18:30 (전화 문의 후, 예약 없이 방문 가능)  
**체험비** 기본체험 9,000원, 기본+달걀 줍기 12,000원, 먹이 추가 2,000원  
**주소** 고양시 일산서구 곳산길 11-10(법곶동)  
**문의** ☎ 031-922-7677



## 놀이터보다 재미난 오감 체험 감성여행

한적한 길을 따라가면 귀여운 닭이 그려진 체험관 간판이 방문객을 반긴다. 일산 서구 법곶동에 있는 꼬꼬체험관은 이름 그대로 여러 가지 닭을 볼 수 있는 공간이다. 박훈배 꼬꼬체험관 대표는 관상용 닭을 취미로 키우다가 자신처럼 닭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 체험관을 열게 되었다.

사육장에는 백폴리쉬(영국), 버프실키(미국), 이사벨레그혼(이탈리아), 골드쿠쿠마란(프랑스), 고려백계(한국), 세레마(말레이시아), 샤모(태국) 등 세계 각국의 대표 닭들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체험 신청 시 새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닭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가이드의 도움을 받아 달걀 줍기 체험이 가능하다. 닭들이 갓 낳은 따끈따끈한 달걀은 직접 꺼내서 집으로 가져갈 수 있다.



## 동물들과 함께하는 교감형 생태동물원

이곳에는 닭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평소 쉽게 접할 수 없는 산양, 양, 염소, 돼지, 라쿤 등 귀엽고 신기한 동물들과의 특별한 만남이 이뤄진다. 동물과 눈을 맞추며 먹이를 주는 체험은 특히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이다. 당근을 내밀면 저마다 서로 먹이를 달라며 우르르 모여든다. 꼬꼬체험관은 가축사육업허가 등록이 된 곳으로 전문 담당 수의사가 동물들의 건강을 수시로 살피고 있다.

체험관 곳곳에는 방문객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도 돋보인다. 실외 지붕이 있어 날씨가 궂은 날에도 체험할 수 있고, 이동 경로에 턱이 없어 휠체어나 유모차로 다니기에도 편리하다. 체험 예약은 홈페이지와 전화, 인스타그램 DM으로 예약 가능하며, 체험 시간은 30~40분 정도 소요된다.

### Mini Interview

**박종욱**(꼬꼬체험관 팀장)

꼬꼬체험관은 200평 정도의 규모로, 100여 마리의 동물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얼마 전, 22살 육지거북 한 마리를 기증받아 아이들에게 소개하니 신기해하고 좋아해요. 12월부터는 그림을 그리는 체험을 추가할 예정이니, 추운 날씨에 아이들과 갈 만한 체험 장소를 찾는다면 꼬꼬체험관을 찾아주세요!



**신삼용**(화정동)

코로나19 상황이 조금씩 풀리면서 어린이집 아이들과 외부 체험을 하고 싶어 찾아보던 중에 꼬꼬체험관을 알게 되었어요. 아이들이 어려서 동물이 있는 곳이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가이드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아이들이 즐겁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 병원 밖 심정지와 심폐소생술

<고양소식>은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의료진과 함께 의학 칼럼 코너를 마련, 독자들에게 유용한 의학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다. 이번호 주제는 최근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심폐소생술’이다. 잘 익혀둔다면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글. 김태윤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הל러원 축제 분위기로 가득했던 10월 29일 밤 이태원, 그곳에 대규모 인파가 몰리며 압사 사고가 일어났고 그로 인해 수많은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했다. 압사 사고는 이전에도 여러 건이 발생했는데, 2005년 10월에도 경북 상주시에서 발생한 사고가 있다.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한 곳의 출입문으로 입장하려다가 11명이 숨지고 145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사망 원인으로는 외상성 질식이 가장 많았고, 기흉, 심장의 좌상, 간 비장의 파열 등도 관찰되었다.

일반적인 외상 사고의 사망 발생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세 단계의 정점을 보인다. **첫 번째 정점은 외력으로 인해 사고 즉시 발생하는 것**으로 치명적인 두부 손상, 대혈관, 심장의 직접적인 손상에 의해 발생한다. **두 번째 정점은 병원 방문 후** **부터 수 분에서 수 시간 이내에 발생**하며 주로 두부, 흉부, 복부의 주요 손상에 의해 발생한다. **세 번째 정점은 외상에 의한 후유증으로 인해 발생하며** 전신 염증 반응과 다발성 장기 부전에 의한 사망이다. 이번 이태원 압사 사고는 일반적인 외상 사망과는 차이가 있다. 사망의 원인이 질식에 의한 심정지

로, 짓눌린 압력으로 인해 가슴이 팽창하지 못해 산소 공급이 되지 않아 심정지가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

외상성 심정지는 비외상성 심정지에 비해 소생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정지가 발생하지 않은 중증 외상 환자는 중증 외상 소생술에 따라 치료를 시행하지만, 심정지가 발생하면 지침은 비외상성 심정지의 심폐소생술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응급의학적 관점에서 **심정지 이후 ‘골든타임’은 4~5분 가량**으로 본다. 이는 뇌로 공급되는 혈류가 4분 이상 정지되면 뇌 손상이 진행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시 산소가 공급된다 해도 뇌세포의 손상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골든타임 안에 ‘고품질 심폐소생술’을 통해 뇌 손상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이태원 사고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소방구급대원과 함께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에 참여했다. 심정지를 목격한 후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확률이 3배 이상 높아 심폐소생술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된 지 오래다. 질병관리청과 소방청은 2020년 구급대가 이송한 급성 심정지 환자 3만여 명 중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이 26.4%로, 2012년 6.9%에 비해 꾸준히 상승세에 있다고 작년 11월 급성심장정지조사 심포지엄에서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영국, 미국 등 해외 주요국에 비하면 아직 낮은 수준이다.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수행하지 못하는 주요 이유는 ‘동작을 정확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환자를 다치게 할 수 있다는 두려움’ 등에 있다고 여러 연구를 통해 보고된 바 있다. 대한 심폐소생협회 (www.kacpr.org)는 일반인 심폐소생술의 시행률을 높이기 위해 기본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행하고 있고 자격증을 발부하고 있다.

심정지의 생존율 향상을 위해 심폐소생술 그 자체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인식과 예방 그리고 교육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태원 사고 당시 많은 시민들이 심폐소생술에 참여한 사례에서 보듯,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시점이다. 심정지는 언제든지 내 주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소중한 생명이 스러져가는 찰나를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 글을 읽는 ‘국민 모두’이지 않을까?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자동심장충격기(자동제세동기) 사용방법

### 1단계 전원 켜기

만약 심폐소생술 중에 자동심장충격기가 도착하면 지체 없이 적용해야 한다. 먼저 심장충격기를 심폐소생술에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에 놓은 뒤에 전원 버튼을 누른다.



### 2단계 두 개의 패드 부착

패드 1은 오른쪽 쇄골 아래에 패드 2는 왼쪽 젖꼭지 아래의 중간 겨드랑이 선에 붙이는데 만약 이물질이 몸에 있다면 제거하며, 패드와 심장충격기 본체가 분리되어 있을 경우에는 연결해야 한다.



### 3단계 심장 리듬 분석

‘분석 중’이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심폐소생술을 멈추고 환자에게서 손을 떼는다. “심장충격(제세동)이 필요합니다”라는 음성 지시와 함께 심장충격기는 충전을 시작한다. 충전은 수 초 이상 소요되므로 계속 가슴압박을 시행한다.



### 4단계 심장 충격(제세동) 시행

심장 충격(제세동)이 필요한 경우에만 심장 충격 버튼이 깜빡거리기 시작한다. 이 버튼을 눌러 심장 충격을 시행하는데, 반드시 다른 사람이 환자에게서 떨어져 있는지 확인하고 버튼을 누른다.



### 5단계 즉시 심폐소생술 다시 시행

심장 충격을 실시한 후에 즉시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30:2로 다시 시작한다. 심장충격기의 사용 및 심폐소생술의 시행은 119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지속한다.



## 심폐소생술 방법



### 1단계 반응 확인 및 119 신고

현장의 안전을 확인한 뒤에 환자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드리며 반응을 확인한다. 환자의 반응이 없다면 즉시 큰 소리로 주변 사람에게 119 신고를 요청한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경우에는 직접 119에 신고한 후, 비치된 자동심장충격기(자동제세동기)를 즉시 가져와 사용해야 한다.



### 2단계 호흡 확인

쓰러진 환자의 얼굴과 가슴을 10초 이내로 관찰하여 호흡이 있는지 확인한다. 환자가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적이라면 심정지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며, 이때 일반인은 비정상적인 호흡 상태를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응급 의료 전화 상담원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 3단계 가슴 압박 30회 시행

환자를 바닥이 단단하고 평평한 곳에 등을 대고 눕힌 뒤에 가슴뼈(흉골)를 아래쪽 절반 부위에 깍지를 낀 두 손의 손바닥 뒤꿈치를 댄다. 손가락이 가슴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며 양팔을 쭉 편 상태로 체중을 실어서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가슴을 압박하고, 압박된 가슴은 완전히 이완되도록 한다. 가슴 압박은 성인에서 분당 100~120회의 속도와 약 5cm 깊이로 강하고 빠르게 시행한다. 숫자를 세어가면서 규칙적으로 시행하며, 압박된 가슴은 완전히 이완될 수 있게 한다.



### 4단계 인공호흡 2회 시행

환자의 머리를 젖히고, 턱을 들어서 환자의 기도를 개방시킨다. 머리를 젖힌 손의 엄지와 검지로 환자의 코를 잡아 막고, 입을 크게 벌려 환자의 입을 완전히 막은 후 가슴이 올라올 정도로 1초에 걸쳐서 숨을 불어넣는다. 숨을 불어넣을 때에는 환자의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지 눈으로 확인한다. 숨을 불어넣은 후에는 입을 떼고 코도 놓아주어서 공기가 배출될 수 있도록 한다. 인공호흡 방법을 모르거나, 꺼려지는 경우에는 인공호흡을 제외하고 가슴 압박만 시행한다.



### 5단계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의 반복

이후에는 30회의 가슴압박과 2회의 인공호흡을 119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 시까지 반복해서 시행한다. 다른 구조자가 있는 경우에는 한 구조자는 가슴 압박을 시행하고 다른 구조자는 인공호흡을 맡아서 시행하며 5주기(가슴 압박 30회, 인공호흡 2회, 5회 반복)를 시행한 뒤에 서로 역할을 교대한다.



### 6단계 회복 자세

가슴 압박 소생술을 시행하던 중에 환자가 소리를 내거나 움직이면, 호흡도 회복되었는지 확인한다. 호흡이 회복되었다면, 환자를 옆으로 돌려 눕혀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한다. 그 후 환자의 반응과 호흡을 관찰해야 한다. 환자의 반응과 정상적인 호흡이 없어진다면 심정지가 재발한 것이므로 신속히 다시 시작한다.

심폐소생술+자동제세동기  
일반인 심폐소생술  
출처 : 대한심폐소생협회 (kacpr.org),  
질병관리청 손상예방관리과 (043-719-7418)





# 마음까지 따뜻한 연말을 위한 문화가 있는 고양

2022년도 이제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다. 올해를 뜻깊게 보내는 방법 하나, 마음을 따스하게 토닥여주는 공연을 즐기는 건 어떨까.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다채로운 문화 정보를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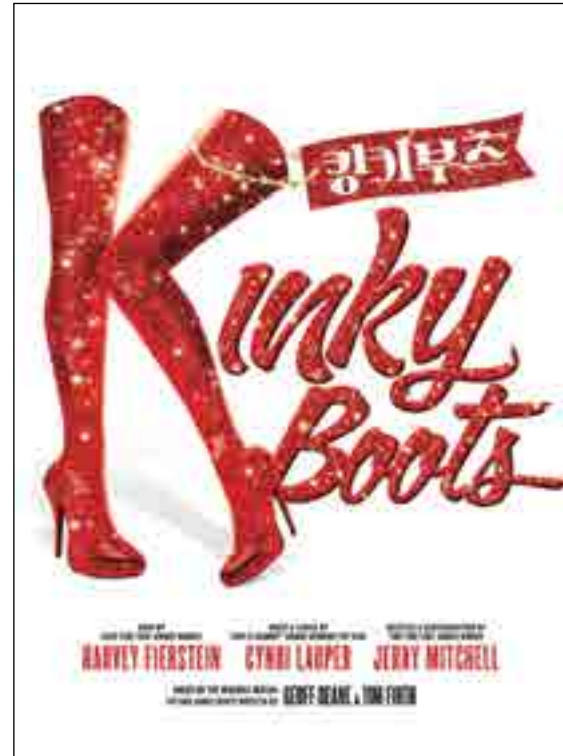
고양문화재단



고양문화재단  
The Goyang Cultural Foundation

홈페이지 [www.artgy.or.kr](http://www.artgy.or.kr)  
문의 ☎ 1577-7766





## 1 클래식 <베이스 연광철 리사이틀>

고양국제음악제 이후 10년 만에 고양 아람누리를 찾아온 이번 무대는 독일 예술가곡을 대표하는 슈베르트, 슈만, 슈트라우스의 작품과 바그너와 로시니의 오페라 아리아, 엄선한 우리 가곡까지 다양한 빛깔의 리사이틀을 선보일 예정이다. 같이 무대를 꾸며나갈 피아노 '피터 오브차로프'는 유럽, 아시아 등 유수의 콘서트홀에서 솔로리스트이자 세계 주요 도시에서 오케스트라 협연자로 연주하였다.

**일시** 12. 9.(금) 20:00  
**장소** 고양아람누리 아람음악당(마두동)  
**티켓** R석 : 60,000원, S석 40,000원  
A석 : 30,000원

## 2 콘서트 <추다혜차지스 콘서트>

‘추다혜차지스’는 소리꾼 추다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이키델릭 샤머닉 힙크 밴드이다. 사이키델릭 샤머니 힙크는 직접 만들어낸 장르로 평안도, 제주도, 황해도 곳에서 쓰이는 무가에 힙크 사운드와 힙한 요소를 가미하여 그들만의 독특한 음악색을 보여주고 있다. ‘뭉’을 뜻하는 ‘차지’는 음악을 만든 추다혜차지스와 듣는 이들의 뭉으로 ‘모두 가져가’라는 뜻을 담고 있다.

**일시** 12. 9.(금) ~ 10.(토) 금 20:00, 토 17:00  
**장소** 고양아람누리 새라새극장(마두동)  
**티켓** 전석 35,000원

## 3 2022 아람누리 오페라 콘서트 <모차르트 마술피리-용기와 희망>

‘마술피리’는 1791년 9월 30일 초연된 작품으로 모차르트의 생애 마지막 오페라이기도 하다. 하이라이트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콜로라투라 소프라노 아리아 중 ‘지옥의 분노, 마음에 불타고’를 밤의 여왕이 부르는 부분이다. 타미노와 파미나 두 사람의 힘든 시련을 이겨내면서 사랑의 승리를 얻게 된다는 용기와 희망의 내용을 오페라를 통하여 보여줄 예정이다.

**일시** 12. 17.(토) ~ 18.(일) 토 16:00, 일 16:00  
**장소** 고양아람누리 아람음악당(마두동)  
**티켓** 1층석 40,000원  
2층석 30,000원

## 4 뮤지컬 <킹키부츠>

폐업 위기에 처한 구두 공장을 물려받게 된 ‘찰리’는 유쾌한 남자 ‘롤라’를 만나 도전을 시작한다. 남자가 신는 80cm 길이의 부츠인 ‘킹키부츠’를 함께 만들기로 한 두 사람은 밀라노 패션쇼에서 색시한 ‘킹키부츠 라인’을 선보이려 하지만, 협업은 어렵지만 하다. 결국 ‘찰리’는 밀라노 런웨이에 홀로 서게 된다. 과연 두 남자가 함께 완성할 ‘킹키부츠’는 성공할 수 있을지 스토리의 궁금증을 만들어내며 화려한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일시** 12. 17.(토) ~ 18.(일) 14:00, 19:00  
**장소** 고양아람누리 아람극장(마두동)  
**티켓** VIP석 150,000원 / R석 130,000원  
S석 90,000원 / A석 70,000원

## 5 클래식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시네마 클래식 데이>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가 <어벤져스>, <올드보이>부터, 직접 녹음에 참여했던 <태극기 휘날리며>까지 역대 흥행했던 영화 OST를 선보인다. 또한 음악과 뮤지컬의 경계를 허물며 대중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보헤미안 랩소디>, <레미제라블>의 감동도 재연한다. 레트로 특집으로 꾸민 영화 <미션>, <록키>의 OST까지, 이번 공연에서는 다양한 곡들을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의 생생한 라이브 연주로 들어볼 수 있다.

**일시** 12. 28.(수) 20:00  
**장소** 고양아람누리 아람음악당(마두동)  
**티켓** R석 40,000원, S석 30,000원

공연, 전시부터  
문화예술교육까지  
시민 여러분의  
문화생활을  
지원합니다.

## 시정 게시판

###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b>대상</b>	전국민(주민등록자)
<b>기간</b>	2022. 10. 6.(목) ~ 12. 30.(금)
<b>추진기관</b>	동 행정복지센터
<b>조사 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 국민(주민등록자)을 대상으로 조사 진행</li> <li>- 보건복지부 선정 복지 취약계층 중점 방문조사</li> <li>- 보건복지부 시스템에서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생존여부 확인</li> <li>-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대상자 실태조사</li> </ul>
<b>협조사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대면·디지털 조사’ 도입으로 정부24 모바일을 통하여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응답한 세대는 유선 조사로 절차 간소화</li> <li>- 무단전출자, 허위전입신고자는 사실조사 기간 동안 실제 거주지로 주소 이전</li> </ul>
<b>기타사항</b>	- 사실조사 기간 동안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 대상자 자진신고 시 과태료의 1/2 ~ 3/4 경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 안내

**신청대상** 만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 수급자 중 독거, 고령부부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 서비스내용

<b>안전 및 안부확인</b>	① 안부확인, 안전점검, 생활정보 제공, 말벗서비스 ② 주3회 제공(방문 1-2회, 전화 1-2회) ※ 고위험군 대상 스마트 돌봄 장비를 활용한 모니터링 추가
<b>사회참여 프로그램</b>	여가 및 문화 활동, 평생교육활동 지원
<b>생활교육</b>	① 영양 및 식단 관리, 개인위생교육 ② 우울 및 치매예방 인지활동 프로그램
<b>복지서비스 연계</b>	후원물품 및 각종 복지서비스 연계

**신청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신청  
**신청문의** 고양시 민원콜센터 ☎ 031-909-9000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노인복지 담당자

### 2022년 주거이외의거처 주거실태조사 안내

<b>조사기간</b>	2022. 11. 17.(목) ~ 12. 13.(화)
<b>조사주관</b>	국토교통부
<b>수행기관</b>	LH토지주택연구원, (재)한국통계진흥원
<b>법적근거</b>	주거기본법 제20조(주거실태조사),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3조
<b>조사내용</b>	주거기본법 시행령(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등
<b>조사방법</b>	전문조사원에 의한 방문면접조사 (자기기입식조사 병행)
<b>조사대상</b>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
<b>홈페이지</b>	<a href="http://stat.or.kr">http://stat.or.kr</a>
<b>문의</b>	(재)한국통계진흥원 ☎ 070-4128-3227

### 2022년 문화누리카드 사용기한 안내

<b>발급대상</b>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6세 이상)
<b>이용금액</b>	110,000원
<b>발급기간</b>	11월 30일까지
<b>사용기간</b>	12월 31일까지
	※ 2022년 12월 31일 이후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전액 소멸
<b>사용문의</b>	문화누리홈페이지( <a href="http://www.mnuri.kr">www.mnuri.kr</a> ), 전화(☎ 1544-3412)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 고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 ‘마림바 콘서트 (with 그림자극)’ 안내

<b>공연주제</b>	크리스마스 공연 ‘마림바 콘서트 (with 그림자극)’
<b>신청기간</b>	2022. 11. 28.(월) ~ 12. 22.(목) 17시까지
<b>신청대상</b>	고양시 관내 영유아 가정 및 어린이집
<b>신청방법</b>	고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 로그인 - 영유아 가정: 가정양육지원 → 교육행사 → 부모·자녀 체험프로그램 - 어린이집: 어린이집지원 → 교육행사 → 어린이집 신청
<b>공연일시</b>	2022. 12. 23(금) 9시~21시 시간 내 유튜브(YouTube) 자유시청
<b>문의</b>	☎ 031-975-3314 (내선1)

## 의정 게시판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고양특례시의회의는 제267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인 10월 11일부터 10월 18일까지 8일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 본청, 사업소, 구청 및 고양 도시관리공사, 고양시정연구원, 킨텍스, 고양문화재단, 고양 시청소년재단 등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주요 시책사업, 전년도 주요 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조치 결과, 각종 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 등 시정 전반에 대해 각 상임위

원회별로 심도 있고 강도 높은 감사가 진행되었다. 의원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총 292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를 하였으며, 시정 전반의 객관적인 평가와 시정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예산낭비,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날 선 시정 요구와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한편, 잘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 고양특례시의회, 시 집행부와 소통한마당 친선경기 개최

고양특례시의회의는 10월 20일, 제267회 제1차 정례회를 마치고 고양시체육관에서 시의회와 집행부 상호 간의 소통한마당 친선 경기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시의회와 집행부 간의 친선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고양특례시의회 소속 의원들과 집행부 간부 공무원 등 80여 명이 참여했다. 개회식 후 시작된 체육대회는 농구 슛 배틀을 시작으로 배구, 피구 종목 순으로 진행되었다.

행사에 참여한 의원들은 서로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값진 시간이었다며, 이를 바탕으로 더욱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 독자 소리함

### 독자의 소리

11월호를 읽고 보내주신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입니다.

**이동렬**  
(하남시 하남대로)

‘책 대신 골라 드립니다’가 반가움을 더해 주네요. 책을 가까이 하겠다는 마음은 늘 있지만 작심삼일. 가까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을이 가기 전에 몇 권의 책이라도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감사드리며 ‘이달의 추천 도서’를 참고하여 부지런히 읽어 보겠습니다.

**최석환**  
(덕양구 화신로)

이태원 사고 후 안전과 구조에 대한 국내적 관심이 높아졌는데 119 60주년 소방의 날 특집은 시의 적절한 내용이었고, 고생하시는 소방관들을 응원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서범석**  
(강동구 고덕로)

‘고양 청년동지론’이 인상적입니다. 고양특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예정자인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고양특례시의 청년지원정책은 고양특례시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성유연**  
(일산동구 중산로)

고양특례시에 살면서 청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꿈을 펼치는 이야기, 그리고 청년 소상공인 대표님들의 인터뷰가 좋았습니다.

**하설미**  
(덕양구 내유길)

지원 정책을 챙겨보고 주변에 도움 드릴 수 있는 분들께 알려 드릴 수 있어 시정게시판이 큰 도움이 됩니다. 복지정책 등 변경사항이 있으면 꼭 알려 주세요.

※ 엽서 설문 참여 당첨자 : 홍균(양평군 옥천면), 심경옥(덕양구 중앙로), 홍소진(강서구 등촌로), 김한순(덕양구 백양로), 노동옥(덕양구 통일로)

### 새해 이벤트

2023년 독자 여러분의 새해 메시지와 사진을 보내주세요. 당첨자에 한하여 2023년 고양소식 1월호에 게재되며,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신청 방법** 이름, 나이, 주소, 연락처, 새해 메시지(5줄 이내), 사진을 첨부하여 이메일로 신청  
**이메일** gysosic@korea.kr

### 고양시와 소통해요!

오늘 고양시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다양한 소통 채널로 생생한 고양시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고양원픽



시 홈페이지



고양TV



카카오톡 채널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 폐기물처리시설 (소각시설) 입지를 공모합니다!

2022. 10. 28. ~ 2023. 1. 25.(90일간)



**공 고 명**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

### 설치계획

구분	1안)단일·광역시설	2안)분산시설(2곳)
처리 대상지역	고양시 전역 ※ 광역화 시 참여 시군 전역	고양시 전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예상규모	650톤/일	350톤/일 (지역별)
부지면적	45,000㎡ 이상	25,000㎡ 이상(지역별)

### 응모자격

신청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80% 이상 주민동의 및 신청부지 토지 소유자의 80%이상 매각동의를 얻은 개인, 단체, 문중대표, 마을대표 등

### 신청서류

- ① 입지 응모신청서
- ② 주민동의서(신청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80% 이상)
- ③ 토지소유자 매각 동의서(신청부지 토지소유자의 80% 이상)
- ④ 유치 위원회(대표회) 명단
- ⑤ 입지 후보 신청지 토지명세서 및 위치도

### 접수방법

- ① **신청서 교부처** : 고양시 자원순환과 및 고양시 홈페이지
- ② **신청서 접수처** : 고양시 자원순환과(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3-5, 2층)  
☎031-8075-2691

### 접수기한

2023. 1. 25.(수) 18:00까지 방문접수에 한함

구분	광역·단독·분산시설
편익시설 예상 규모	650톤/일 설치 시 약 514억원 이내(주변영향지역 주민 사용료 감면)
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 종류	농림수산업, 상공업, 관광, 의료, 도로, 상하수도, 교육·문화, 환경·위생시설, 운동·오락시설, 전기·통신시설, 학자금 지급 등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산정방식	주변영향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해 징수한 수수료의 20% 이내

우편엽서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고양in 행복人

2022 DECEMBER Vol.358

받는 사람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 언론홍보담당관실 <고양소식> 담당자 앞



GOYANG SPECIAL CITY MAGAZINE

2022 DECEMBER





